

크기 줄여도 약물효과는 그대로 목 넘김 편한 제형 리뉴얼 잇따라

종근당 리피로우·텔미트렌 축소
JW중외제약 ‘브레핀에스’ 리뉴얼
동아에스티 ‘스티렌’ 4번 개량거쳐

국내 제약사들이 소비자 중심의 리뉴얼을 통해 제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1월 ‘리피로우 20mg, 40mg, 80mg’의 제형을 축소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 ‘리피로우’는 아토르바스타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타틴 계열 단일제제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이번 ‘리피로우’ 리뉴얼에서 종근당은 20mg과 80mg은 기존 제형 대비 28%, 40mg은 49% 축소에 성공했다. 이로써 환자의 복약순응도뿐만 아니라 약물 효과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4년 2월에는 ‘리피로우 10mg’의 제형도 축소한다. 무엇보다 모든 용량의 성상을 타원형으로 일원화하고 분할선을 추가할 방침이다.

종근당의 고혈압 치료제 ‘텔미트렌 40mg, 80mg’의 제형 크기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복약 순응도는 약제 개수, 정제 형태, 복약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약제 크기는 목의 통증과 불편감을 야기해 복약순응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브레핀에스.

/중외제약.

JW중외제약도 최근 액상형 연질캡슐 진통제 ‘브레핀에스’의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JW중외제약은 ‘브레핀에스’의 제형 크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가로 14.5mm, 세로 8.9mm에서 가로 13.0mm, 세로 8.1mm로 중량 기준 약 22% 축소했다.

브레핀에스의 주성분은 이부프로펜으로 발열, 요통, 생리통 등 다양한 통증을 빠르게 억제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과 고령인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앞서 지난 10월에는 진통소염제 ‘페인엔젤 프로(성분명: 텍시부프로펜)’의 제형 크기도 중량 기준 약 28% 축소했다. 기존 가로 19.8mm, 세로 8.6mm였던 페인엔젤 프로의

제형 크기는 현재 가로 14.2mm, 세로 9.0mm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페인엔젤 프로’의 경우는 1일 2회 이상 다회 복용하는 진통소염제 복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을 차별화한 것이다.

JW중외제약은 향후 페인엔젤 이부, 페인엔젤 센 등 소염진통제 제품군의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도 지난 2002년 출시된 후 4번의 개량을 거쳤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5년 스티렌의 경질 캡슐을 정제로 변경했다. 지난 2019년에는 스티렌의 제형 길이와 무게를 축소하고 장 방향에서 원형으로 개선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슈가논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 치료제인 ‘슈가메트서방정’에 동아에스티 자체 기술인 ‘LVMG’을 활용했다. 부형제의 양을 최소화해 정제 중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또 다중 방출 과립 제조 기술로 제형을 설계했다.

이같은 주요 품목의 제형 개선은 견조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스티렌은 지난 21년 동안 약 9064억원의 누적 매출(스티렌 2X정 포함)을 기록했다. 또 슈가논의 올해 3분기 매출은 68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온더바디 풋샴푸 4종 선보

웹툰 ‘마루는 강쥐’와 맞손

LG생활건강의 바디케어 브랜드 ‘온더바디’가 발 관리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온더바디가 ‘온더바디×마루는 강쥐 콜라보 에디션’ 4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코튼풋 발을씻자 풋샴푸’에 웹툰 ‘마루는 강쥐’를 접목한 것이다.

웹툰 ‘마루는 강쥐’는 갑자기 5살 아이로 변한 강아지 마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LG생활건강은 마루의 포

근하면서도 시원한 성격을 풋샴푸 향으로 구현했다.

LG생활건강은 풋샴푸 ‘사르르 비누향’과 ‘아르르 민트향’을 새롭게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발 냄새를 잡는 ‘풋미스트’와 발 각질을 제거하는 ‘풋필링팩’도 있다.

특히 ‘발가글하자 풋미스트’는 발에 뿌리면 발 냄새를 완화해준다. 알래스카 빙하수와 멘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양말처럼 신으면 되는 ‘발각질벗자 풋필링팩’은 편백과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보습과 진정 기능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패션그룹형지가 지난 3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중국 최대 섬유류수출기업인 디샹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왼쪽부터),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총괄 부회장, 주리화 디샹그룹 회장, 쿵판핑 위해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패션그룹형지

형지, 中 의류수출기업과 맞손 ‘현지 개척’

디샹그룹과 의류시장 개발 MOU

패션그룹형지(이하 형지)가 중국 최대 섬유류수출기업인 디샹그룹과 손잡고 중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형지는 지난 30일 중국 위해시에 본사를 둔 현지 최대 의류수출기업 디샹그룹(Dishang Group)과 의류 시장 공동개발과 생산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디샹그룹은 텍스타일 수출과 의류 OEM·ODM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 40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15억 달러 수출을 포함 연매출 3조4000억원대(2022년 기준)를 올리는 중국의 대표적 섬유패션기업이다.

송도에 본사를 둔 형지는 산둥반도 위해시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디샹그룹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송도

를 글로벌 형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업무협약에서는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실제로 양국의 의류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의류 시장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의류 OEM 및 ODM 생산 협력과 함께 자본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의 섬유패션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업 및 기관의 교류 활성화 및 마케팅 협력도 이루어질 방침이다.

형지는 이번 디샹그룹과의 업무협약으로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자사계열사인 형지엘리트가 지난 2016년부터 중국 현지 교복시장에 진출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 E.&J. 갈로와 MOU ‘美 공략’

E.&J. 갈로 와인 한국시장 판매 강화
내년부터 처음처럼·새로 등 美 판매

롯데칠성음료가 미국 시장 공략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와이너리인 E.&J. GALLO와 MOU를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 E.&J. GALLO 빌 로버츠 본사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칠성음료는 E.&J. GALLO의 와인에 대한 한국 시장 내 판매를 강화한다. 또 E.&J. GA



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오른쪽), E. & J. GALLO 빌 로버츠 부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LLO는 내년 1월부터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순하리’의 미

국 로컬 시장 내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17년부터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시장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E.&J. GALLO는 75개 계열사와 140여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약 110개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회사로 ‘칼로 로시’, ‘아포티’, ‘오린 스위트’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특히 나파밸리 컬트 와인의 대표자인 ‘오린 스위트’는 전체 물량의 15%가 한국시장에서 소비될 만큼 한국 와인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 ‘퍼즐우드 단독’ 기획전

퍼즐우드 아트 오브제 출시 기념

아모레퍼시픽이 퍼즐우드의 아트 오브제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024년 1월 28일까지 서울 성수에 위치한 아모레성수에서 ‘퍼즐우드 단독 기획전’을 진행한다

한다고 5일 밝혔다.

퍼즐우드는 이번 기획전을 위해 국

내 유명·신진 공예 작가와 협업해 몽상 식물을 주제로 한 아트 오브제를 제작했다.

퍼즐우드가 선보이는 아트 오브제 ‘몽상 식물 에디션’에는 ‘센트 워’와 ‘세이프 오브 리추얼’이 있다. ‘센트 워’는 천연 소재의 텍스타일 수제 오브제다. 집꾸미기, 장식품, 디퓨저 스틱 등으로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품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

테리아 러셋·티크 출시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전용 타바코 스틱 신제품 ‘테리아 러셋(TEREA Russet)’과 ‘테리아 티크(TEREA Teak)’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테리아 일반 맛 라인업에 속하는 ‘테리아 러셋’과 ‘테리아 티크’는 정통 담배맛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섬세한 블렌딩을 통해 ‘테리아 러셋’은 깊이 있는 목작함음, ‘테리아 티크’는 균형 잡힌 부드러움을 전달한다.

/신원선 기자

애경산업, 캡슐세제 ‘프로 트리플샷’ 첫 선

표백·양이온 폴리머 성분 등 첨가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각종 생활 얼룩 제거에 나선다.

애경산업은 고급 세탁세제 브랜드 ‘리큐 제트’가 캡슐 세제 ‘프로 트리플샷’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실내 건조 시 끈적한 빨래 냄새의 원인은 섬유 속 피지 물질이다. ‘프로 트리플샷’은 ‘10중 액티브 효소’를 포함해 음식물 얼룩부터 피지 얼룩까지 각종 생활 오염을 제거

한다.

아울러 애경산업은 ‘프로 트리플샷’에 얼터네이티브 표백 성분, 양이온 폴리머 성분 등을 첨가해 제품을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오염의 표면을 탈색하는 산소계 표백제와 달리 ‘프로 트리플샷’은 흰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세탁한다.

또 피부 자극 시험도 완료해 온 가족 의류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